

제10회 신행수기 입상작  
우수상(현대불교신문사장상)

어머니와 동자승

박순서 (서울시 성북구 상월곡동)

이 세상 어디에 고통 없는 삶이 있을까. 부처사 들게다니는 내 눈물이 고여 있다. 지나간 날을 뒤돌아보면 안개 드리워진 숲속에 희미하게 보이는 내 자신이 있다. 인간 세상에 고통이 없다면 부처님은 안 계셨으리라.

나는 자신에게 물어 본다.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간사한 인간이었는가를...

그러나 지금은 나날이 즐겁다. 내 가슴속에 부처님이 계시기에 언제나 즐거움만 넘친다. 법당을 무릎을 꿇고 앉으면 저절로 흐르는 눈물, 나 같은 미천한 것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어여뻐 여겨주시 부처님 전에 이 마음을 드린다.

마음이 더 없는 행복감과 평온함으로 가득찬다. 내가 진실로 부처님 전에 참회하고 이 세상 어두운 곳에 불을 밝히려라.

나는 어릴 적에 염주를 목에 걸고 다녔다. 지금은 초등학교라 불리는 국민학교 3학년 무렵부터 염주를 목에 걸고 다녔는데, 그때 나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 그냥 부모님이 그렇게 해주시니까 자랑 삼아

는 것을 친구들에게 자랑하기도 하였다.

언젠가 나는 어머니를 따라 절에 갔다가 이틀 밤을 절에서 보낸 적이 있다. 사월 초파일 일을 하루 앞두고 어머니는 광목 자투에 쌀 몇 되를 넣고 나를 앉혀 부처사로 갔다. 하루 한번 다니는 버스를 타고 부석에 내려서 절까지 3킬로 정도 걸어갔다. 계곡 오솔길 양쪽에는 이름 모를 꽃들이 활짝 웃음을 터트리고 반가워라 손을 흔들었고, 어머니는 무엇이 즐거운지 얼굴에 웃음이 가득 했다. 한참을 걸어 절에 도착했을 때 어느새 해는 뉘엿뉘엿 서산으로 기울고 있었다.

저를 가보는 절, 내겐 너무나 신기한 모습이였다. 어머니를 따라 법당으로 들어섰을 때 달경 겁이 났다. 지은 죄가 너무나 많아서 부처님 앞에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다. '부처님, 저는 평소 잘못된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 집에 어떤 스님이 오셨는데 목탁을 두드리시는 것이 무슨 의미인 줄도 모르고 그 스님을 놀리다가 어머니한테 야단맞았습니다. 정말 잘못 했습니다. 부처님...' 나는 고개를 숙이고 부처



그림 · 문병성

어머니 따라 처음 간 부석사에서  
아홉살 된 동자승 만나

걸고 다녔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장난치고 놀다가 어떤 때는 염주 끈이 끊어져 알맹이를 잃어버린 적도 몇 번이나 있었다.

어머니는 예전부터 부석사에 다니셨는데 내가 불교와 인연을 맺게 된 것도 그 무렵부터이다.

절에 가실 때마다 어머니는 밤새 무엇을 하시는지 새벽녘에 잠깐 눈을 붙이고는 어둠이 가시지 않은 이른 아침부터 절에 갈 준비로 분주하셨다. '부처님한테 갈 때는 몸도 깨끗해야 하고 마음도 청결해야 한다.' 어머니는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다. 지금은 팔손이 가까운 연세인 어머니가 절에 다니기 시작한다는 오래 전부터라고 했다. 나는 어릴 적부터 어머니가 절에 다니

님의 모습을 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절을 하는 동안 눈시울이 젖어 들었다.

어머니는 부처님께 절을 하면서도 때때로 자세하나 흐트러지지 않았다. '어머니는 무슨 잘못이 그렇게 많아서 절을 하고 있는 걸까? 어머니는 무서움도 없고, 지은 죄도 없는 줄 알았는데...' 얼마 후 어머니는 부처님 앞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계셨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방금 울었죠?' 어머니는 말없이 빙긋 웃기만 하셨다. 법당을 나와 잔디밭에 앉아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초여름 밤의 향기를 맡았다.

산사의 밤은 점점 깊어 가고 어머니의 이 아홉살 된 동자승을 만나게 되었다. '내가 처음 이 절에 왔을 때 너는 아직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

다. 돌이켜보면 까마득한 옛날 일이지. 네 아버지를 만나서 시집 온 이후 줄곧 이곳을 다니다가, 네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난 후로 나는 부처님께 의지하여 살아왔다. 그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왔다. 지금 생각하면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에 흔들리는 내 마음을 잡아 준 것도 부처님의 보살핌이었지.'

어머니는 오랫동안 절 다니신지라 절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절 여거지기로 나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런 저런 것을 가르쳐 주기도 하셨다. 그날 밤 나는 그곳에서 동자승을 만나게 되었다. 어머니한테서 늘 말로만 들던 동자승의 모습을 직접 보게 되자, 웬지 마음 한 구석이 무거워졌다.

'동자승은 여기에 있으면 학교는 어디 다녀요? 그리고 머리 빗뺍 깎고 장피해서 어떻게 학교에 다녀요?' 내가 그렇게 묻자 어머니는 '셋!' 하면서 조용하라고 하셨다. 동자승은 아홉 살이라 했는데, 어머니를 보자, '보살님!' 하면서 응석 부리듯 다가왔다. 어머니는 동자승을 깨안고 한참 얼굴을 비쳤다. '보살님, 지난번에 저한테 주신다고 약속하신 염주는 어떻게 되었어요?' '네, 여기 있지요. 자...' 어머니는 가방에서 염주를 꺼내 동자승의 목에 걸어 주었다. '아이고, 우리 스님. 예뻐기도 해라.'

동자승의 손을 어루만지는 어머니 눈가에 눈물이 글썽글썽 했다. '어머니는 절에 다니면서 눈물만 늘었는가 봐, 왜 저렇게

잘 우실까?'

산사의 밤은 깊어 가고 나는 커다란 방에서 낮은 사람들과 어울려 잠을 자야 했다. 하지만 잠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어머니는 방 한쪽에서 종이에 무엇인가 글을 쓰고 있었다. 뻘뻘뻘 써 내려간 글씨를 보며, '어머니, 제가 써 드릴게요.' 하고 말했지만 어머니는 한사코 자신이 쓰겠다고 나에게 열른 잠이나 자라고 하셨다.

새벽이 가까워지고 아직 어둠은 걷히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하나 둘 일어나 세수를 하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어머니는 동자승을 옆에 앉히고 무어라 이야기를 하더니 가방 속에서 옷 한 벌을 꺼냈다. 동자승의 웃음이었다.

'우리 스님 드리려고, 내가 손수 만든 건데, 자, 입어 봅시다. 스님.'

'아이고, 스님 참말로 근사하네... 이 보살님이 항상 '동자, 동자' 하더니만 스님 왜 한 벌 해 왔네. 동자승은 참말로 좋기도 하겠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웃으면서 어머니

면, 어떻게 아셨는지 내게 '마음을 다 버리고 살게나. 아직도 마음속에 무슨 욕심을 그렇게 담고 사는가. 그것이 괴로움을 낳는 것일세. 어서 버리게나.' 하시던 말씀이 생각나는구나. 나에게서는 있을 수 없는 스님이셨지. 마음이 흔들려 갈팡질팡 하고 오락가락하던 나를 붙잡아 주셨던 스님이셨는데, 지금은 극락세계에 계실 거야.' 어머니는 먼 산을 바라보며 지난날을 회상하고 계셨다.

'그리고, 한 오년 전인가, 동자승님을 만났지. 그 때 동자승님은 코흘리개였는데, 하루는 밤에 잠을 자다가 일어나 갑자기 엄마가 보고 싶다고 그렇게 울었다. 주지스님도 나서서 달래고 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나서서 달랬지만, 동자승님의 울음은 그치지 않았지. 그러던 중에 내가 '동자승님, 엄마 여기 있다.' 하면서 동자승님을 품에 안고 달래자 그때서야 울음을 툭 그치고 그 길로 잠이 들었지. 그때 나는 동자승님이 내 아들같이 느껴졌어. 너무나 슬피 울던 동자승님의 모습, 이튿날 아침 나는 부처님 앞에서 동자승님을 내 아들로 보내 준 인연

"잠투정 하는 코흘리개 스님을  
내 아들로 삼겠다고 발원했지"

한테 인사를 했다. 나는 하룻밤 사이에 너무나 다른 세상 구경을 한 것 같았다. 여태껏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어머니의 우는 모습을 그날은 몇 번이나 보았다. 그러나 그런 어머니가 항상 밝게 웃으며 살아가는 모습은 나에게 많은 생각을 갖게 하였다. 날이 밝자 나는 동자승과 함께 어머니를 따라 법당으로 갔다. 햇빛은 낮에도 변함없이 자신을 태우고 있었다. 부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법당에 고요가 흘렀다.

'부처님, 지금까지 제가 잘못된 거 어찌 있었습니까? 다 말씀 드렸는데, 이제 저를 용서 하신지요?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아무런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부처님께 진심으로 잘못을 빌면 부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나는 부처님을 바라보면서 속으로 기도했다.

얼마가 지났을까, 어머니는 몇몇 사람들과 동자승을 데리고 뒷산 길을 걸었다. 소나무 뿌리가 흠뻑으로 빠져서 튀어나와 지나가는 발걸음에 걸려 어머니는 낙엽을 끊어 나무뿌리를 덮어 주었다. 산길을 조금 올라가다 널따란 바위 앞에 자리 잡고 앉은 어머니는 오래 전 이야기를 꺼냈다.

'아주 오래 전 일이지... 내가 처음 이 절에 왔을 때, 노스님 한 분이 계셨어. 그 스님은 내가 마음에 답답하여 말을 안 하고 있

에 감사한다고 기뻐하며 많이도 웃었다.'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있던 동자승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아이고 우리 아들 동자승님, 부처님이 계시는데 울기 왜 우냐요.' 어머니는 웃소매로 동자승의 눈물을 닦아 주었다.

어머니가 항상 내게 들려 주셨던 동자승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 있는 동자승이었다. 절에 가면 아들이 있다고 종종 말하시던 어머니는 절에 다녀오실 때마다 그렇게 기분이 좋아보였다. 한 손에는 동자승의 손을 잡고, 한 손에는 내 손을 잡고 산길을 내려갔다.

정설모 한 마리가 산길을 쫓르르 올라오다가 우리 일행을 만나자 꼬리를 치켜들고 황급히 나무 위로 올라갔다. 밝은 햇살이 내리는 산사의 푸르름은 어제보다 더해가고 그윽한 향내음은 코끝을 지나 산천으로 번져 가고 있었다. 동자승의 하얀 고무신은 어머니 앞에서 사뿐 거리고, 웃음 머금은 어머니 얼굴에는 초파일의 밝은 태양이 내리고 있었다.

부석사에 올 때마다 그때 일이 그림처럼 떠오른다. 그때의 동자승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 이 땅에 살아가는 험벗고 굶주린 모든 이들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있으시길 기원한다.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꼭꼭 담아두었던 감동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시고 연중 집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자는 소정의 고료를 드리고 신문에 연재하며, 연말에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합니다.

- 주제: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경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722-4162
- 인터넷 접수: renvy@buddhapia.com

개 천 지 조 화 벽

● 예언에 의한 국내최초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시대를 펼치는 천기도량 완성

- 원효대사님의 미륵상부경에 의하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도솔천에서 미륵보살님이 미륵시대를 펼쳐 중생을 구제하신다고 예언
- 미륵보살님은 누구이며 과연 어떻게 미륵시대를 펼친것인가?

- 미륵보살님께서 천상계에서 강림하시어 이제 중생구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 중앙박물관에서 전시한 (2004년 7월 20일 ~ 10월 17일) 미륵보살님 금동 반가사유상 (국보 78호, 83호)은 미륵시대를 예고한 것입니다.

-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응양미륵님께서 천지조화의 기운을 내리시는 다섯분의 대성존님과 천지조화의 수기를 받으시고 강림하신 일곱분의 연화미륵님과, 삼십삼천, 서른세분의 천왕님과 미륵시대를 펼치오니 천견하시어 소원성취하십시오.

특이 도인, 스님, 보살님, 철학인, 종교인, 기공인 또한 일반인에게 공개하오니 천견, 소원성취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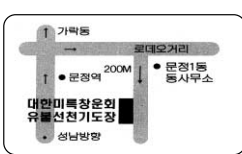
"미륵시대를 전파하라는 천명을 받은 미륵도인, 성산성지에서 오랜 수도를 통하여 천문, 지리학, 천지인 학문과 천지신명의 영동학문에 의한 진리연구로 佛知行 한 미륵선관대도인(天量道師)이 직접 상담

조상천도 업장소멸 인생문제를 천기도법으로... "천기도법"(天氣道法)

- 천기도법에 관심이 있거나 공부 하시려 하시는 분
- 사업을 계획하시거나 잘안되는 분
-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
- 집안이 잘 안돌리는 분
- 천기를 받아 건강하고자 하는 분

예약 및 문의: 02)403-5272

大韓彌勒創運會 儒佛仙天氣道場



"개천구지(開天救地)... 벽도구인(闢道救人)"

황기 9202년 개천 5903년 단기 4338년 불기 2549년 서기 2005년 율유년 새해를 맞이 하여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 시대를 펼칩니다.

율유년 새해에는 시공초월하여 미륵인(彌勒人)이 되어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자!

미륵인이란? 과거의 전생업장(육신, 정신업장)을 소멸하고 새롭게 태어나서 정신과 육신이 하나가 되고 또한 도를 수행(佛,行)함으로써 혁명적인(미륵님의 원력)을 갖고 자기에 맞는 大業과 天業을 대성공하고 나가서는 역사적 사명을 갖고 새시대(미륵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미륵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천기도법(天氣道法)으로 道門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 미륵인이 되면 미륵님의 원력(天氣)과 조상님의 공덕을 받으므로서 어려운 일이 풀리고, 자기분야에서 대성공 할 수 있습니다.
- 道門을 열어 천지조화의 기운(초능력에너지, 생명에너지)을 받으므로서 건강하게 됩니다.(난치병 치유)
- 자기 스스로 치료함과 동시에 제형의 교정도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 초능력과 약사력이 생기므로 누구든지 치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됩니다.
- 시공초월 함으로서 명산대천을 찾아 헤메이지 않고 천지조화의 기운을 받는다.
- 도술도법(원기력, 수인력, 대화력, 약사력, 관음력, 천도력, 용맹력, 지예력, 보살력, 여래력, 성인력)과 육신통(전안통, 천이통, 숙명통, 타심통, 누진통, 신족통)이 열리게 되므로 성불할 수 있습니다.

유불선 天氣道場

시공초월하여 道門을 열수있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끝에 이치에 맞게, 또 미륵시대를 맞이하고자 유불선을 통하여 완성한 道場으로 초과학적인 인간구제 발전소입니다. 3시간 만에 누구든지 미륵인이 될 수 있도록 도문을 열어드립니다. (百聞不如一見, 百見不如一行)

最上情報心身復生

至寶文化彌勒弘益

21세기 최상의 정보는 내마음과 몸을 다시살려 장생의 신선세계에 동참함ियो 지극히 보배스러운 문화는 미륵시대에 부합된 흥익인간 이념을 구현함이니라!